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인문계A)
출제의도와 문제해설

1. 2012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방향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의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방향은 '고등학교 교육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출제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사항을 쉽게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보정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다음과 같은 출제의 기본방향을 유지해 왔고, 2012학년도 논술고사에서도 이 방향을 유지하였다.

(1)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능력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①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② 자신의 견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③ 주어진 자료 속의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능력

(2) 통합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학문의 여러 분야에서 다루는 다양한 부분들을 연결시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3)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출제의 방향과 제시문의 유형을 논의해 출제한다.

금번 시험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시험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애썼다. 복잡하고 난해한 지문보다는 비교적 짧고 내용이 분명한 지문으로 출제하였다. 이것은 학생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분석하고 핵심적 논지를 잘 추출해내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를 뚜렷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을 논술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기 때문이다. 수리논술문제의 경우 고교 수학교육 및 공교육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제시문과 논제에 사용된 소재와 개념은 이미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익숙하게 다루어지는 것들로 택하였으며, 충실한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였

다. 명제, 함수, 수열, 행렬, 확률과 같은 고등학교 수학교과 과정의 여러 개념을 통합한 문제를 출제하여 통합적인 이해와 논리적 분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 제시문의 공통 주제는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간섭'이다. 제시문들은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문헌에서 발췌했다. 수험생은 제시문에 나타난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이에 기초하여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답해야 한다.

고등학생들의 현행 학교 교육 수준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 주제 및 제시문을 선택하여, 통합적 논술의 성격에 맞도록 인문학적 및 사회과학적 사유, 그리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제시문 (1)은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Law, Legislation, and Liberty)》 중 자연적 질서와 간섭에 관한 내용을 출제 의도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전체주의에 반대해 자유주의와 시장 질서를 옹호한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회철학자이다. 《법, 입법 그리고 자유》는 하이에크의 여러 저작 중에서 그의 사상을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관통하는 기본 사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서 사회문제에 대해 제한적 지식만을 갖고 있다. 둘째, 사회제도는 사람들 사이 상호 조정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진화해 왔다. 셋째, 자유주의 사회가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대신 타인의 자유 침해를 금지하는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예: 살인, 절도 금지 등) 내에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시문 전반부에서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제2권 10장 '자율적 시장질서(The Market Order or Catallaxy)' 중 '간섭은 질서를 교란하며 정당화될 수 없다' 편을 재구성하였다.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문제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인과관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위적인 개입, 즉 설계를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뜻밖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사회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상호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 온 것이며, 이러한 자생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시문 전반부의 내용이다. 후반부는 시계 작동을 예로 들어 간섭의 의미를 설명한 후, 간섭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람들 상호 간의 자율적인 조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면, 제시문은 '사회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상호 조정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제시문 (2)의 가는 황순원이 쓴 장편소설 《인간접목》(1957)에서 따온 부분이다. 이 소설은 한국전쟁 직후 전쟁고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서울 어느 고아원을 배경으

로 전쟁, 가난, 폭력 속에서 멍들었던 어린이들이 주인공의 노력에 의해 서서히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제시문은 주인공 최종호가 고아원 내 문제아들의 우두머리 격인 소년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소년은 차라리 거리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종호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선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라며 소년을 설득하려 한다. 소년이 반발하는 가시철망이며 야경 제도에 대해서도 종호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방만으로부터 원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 제시문을 통해서는 '간섭의 필요'라는 논지를 파악해야 한다. 거리의 생활에 젖은 소년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간섭과 통제가 불가피하며, 이는 완전한 치료를 위해 수술 등의 처치로써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치료를 위해 통증을 견뎌야 하듯 개인들 또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간섭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의 복리에 기여하는 선의의 개입이라면 잠시 불편이나 반발을 초래할지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제시문은 제시문 (1)에 나온 하이에크 글의 논지와 대비를 이루면서 '온정적 간섭'이 필요한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온정적 간섭'의 사례를 보여주는 제시문 (2)의 나를 예비하고 있다.

제시문 (2)의 나는 개인과 사회의 복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 및 사적 영역에 간섭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좌석 안전띠의 착용 강제를 든 것이다. 이 제시문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을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쓰고 입법의 배경과 존재 의의를 추가한 것이다. 정당화 사유로는 도로교통법 제 118조의 위헌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518결정을 참조하였다. 이 제시문을 읽음으로써 수험생들은 국가가 후견주의 또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실제 사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제시문 (1)의 논지에 의한다면 개인은 원칙적으로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대한 해악과 비용이 막대한 상황에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국가 본연의 역할, 즉 사회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기능과 배치된다. 이 제시문에 의하여 수험생들은 현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났을 결과(교통사고의 빈발 및 사회적 비용의 증대)보다 개입에 의하여 훨씬 나은 결과(교통사고의 억제와 교통질서 유지 및 궁극적인 행복추구권에의 기여)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게 된다.

제시문 (3)은 상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독일의 법률(Ladenschlussgesetz)을 설명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56년 11월에 제정되어 2003년 6월 일부 개정된 연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독일 내 모든 주(州)에 적용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평일은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30분 이후, 토요일은 7시 이전과 2시 이후(매달 첫 번째 토요일은 예외), 일요일과 공휴일

은 하루 종일 영업을 할 수 없었으나 법률 개정 후에는 토요일도 평일로서 취급하고 평일의 영업 금지 시간을 오전 6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영업시간이 주당 평균 15시간 연장되었다. 일요일과 공휴일의 영업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개정 전 법률에 대해 상점 주인의 직업(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구매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네 명은 합헌, 네 명은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동수(同數) 판결 시의 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렸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04년 6월 9일 결정: BVerfGE 111, 10). 합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이 법률이 궁극적으로 상점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여 건강·여가·수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모든 상점에 적용되는 만큼 시장의 공정 경쟁 유지에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비자의 구매의 자유가 침해되며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상점과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상점(공항, 기차역 소재 상점 등)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3. 논제 해설

수험생들의 독해 및 표현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목표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중요한 논점을 추출하여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해 내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각 제시문의 논지 및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논리적 사고 문제에서는 제시된 조건들과 모형을 이해하고 논제가 요구하는 논리적 추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생각을 주어진 분량 속에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한다.

논제 1은 제시문 (1)을 400~450자 내외로 요약하는 문제이다. 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시문의 핵심적인 논지를 명료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제한된 분량 안에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 능력 및 이해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제시문은 인위적인 사회 설계의 오류, 사회 발전의 자생성, 의도적 개입의 폐해와 자율적 조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요약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은 섬세한 읽기를 통해 핵심 주제와 이 핵심 주제를 주변에서 지지하고 있는 부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그것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요약문을 작성해야 한다. 요약문은 수험생이 독창적으로 만든 글이어야 하므로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답안에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중심 단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답안 작성 포인트>

첫째, 정부의 간섭을 비판하는 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수험생은 제시문에서 왜 정부의 간섭이 문제인가를 설명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요약해야 한다.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서 사회문제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인과관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설계를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사회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상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해 온 것이며 이러한 자생적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담아야 한다.

셋째, 현대 사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간섭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키므로 사회는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상호 조정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담아야 한다.

논제 2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간섭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시문 (1)과 (2)의 상반된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3)에서 제시한 사례, 즉 독일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입법례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문제이다. 논지를 이해하고 비교, 설명하는 능력 및 논리적인 비판 능력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수험생은 먼저 제시문 (1)과 (2)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 간섭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상반된 관점에 서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야 한다. 즉 제시문 (1)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존중하고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생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관점이고, 제시문 (2)는 바람직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다소 침해하는 바 있더라도 후견주의 혹은 온정적 간섭주의의 입장에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관점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논제 1이 제시문 (1)을 요약하는 것이므로, 사실 논제 2의 출제 의도는 제시문 (2)가 제시문 (1)의 논지와 반대되는 사례라는 점을 수험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제시문 (2)의 가와 나가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가(황순원의 《인간접목》)의 지문에서 일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간섭권자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선의의 간섭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① 철망이나 야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서로의 안전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② 의사의 진통제 투여 거부나 물 제공 금지가 결국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비유적 사례가 된다는 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논제 2에서 이 점을 적시하였는지 여부가 채점 단계에서 A등급을 주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셋째, 제시문 (3)의 사례에서 정부의 간섭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때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를 밝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을 밝힌 후 그 논리에 근거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독일의 입법례를 평가하여야 한다. 논리를

갖춘다면 찬성과 반대 중 어떠한 관점에 서든 좋은 평가를 할 것이나, 두 관점을 절충하는 견해는 논제 2에서 명확히 제시한 지문, 즉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라는 문제에 반하므로 감점 대상이다.

<답안 작성 포인트>

첫째, 제시문 (1)과 (2)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간섭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상반된 관점에 서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야 한다. 즉 제시문 (1)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존중하고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생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관점이고, 제시문 (2)는 바람직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다소 침해하더라도 후견주의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관점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제시문 (2)의 가와 나가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가의 지문에서 일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간섭권자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선의의 간섭이라는 논지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야경의 감시 행위와 의사의 진통제 투여 거부 행위 같은 사례를 적시하여야 한다.

셋째, 제시문 (3)의 사례에서 정부의 간섭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때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를 밝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 근거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독일의 입법례를 평가하여야 한다. 논리를 갖춘다면 어떠한 관점이든 가능한데, 논제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조건을 명시했으므로 두 관점을 절충하는 견해는 감점 대상이다.

논제 3은 고등학교 수학교과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명제와 조건, 함수, 최대와 최소, 지수, 행렬, 수열 등의 기본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함수의 여러 성질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산술평균이나 기하평균과 관련한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수함수의 성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수열의 합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항식의 계수를 찾는 문제도 출제하였다.

또한 행렬의 정의나 곱셈 등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행렬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명제와 조건과 관련하여 여러 조건이 연결되어 있을 때 각 조건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4. 평가 기준 및 유의 사항

수험생들의 독해 능력과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논술고사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에서는 여러 제시문을 함께 묶어서 논제를 제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한다.

논술고사에서는 정형화된 하나의 정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의 논술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히 논제 1, 2의 경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논제에서 요약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제시문의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논하는 경우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 및 논제의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셋째, 제시문을 참고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넷째,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법, 분량 요건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